

내 용 : 『노동리뷰』 5월호 - 이슈분석

■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이와 의미”(김정우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199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1987년 이후 약 10년간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개선된 것에는 피용자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적 교섭력 우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피용자 비율의 증가둔화와 함께 노동의 상대적 교섭력 우위 정도가 축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상향조정,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제한,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연대임금정책,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산별교섭 및 협약포괄범위 확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의처 :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책임연구원

Tel : 02-783-7155 E-mail : kjw@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이와 의미

담당자	김정우 책임연구원
전화	02)783-7155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6년에 63.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뚜렷한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2004년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8.8).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피용자(임금근로자)보수를 요소국민소득{국내총생산-(간접세+고정자본소모)}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함.
 이때 노동소득분배율은 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지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 비교적 급격히 개선되어 왔음.
 - 그 원인으로는 고용구조의 고도화(피용자 비율의 급격한 증가), 자본-노동간 세력관계에서 노동의 우위(노동생산성증가율을 다소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실질임금상승률), 산업구조의 고도화(노동집약도의 하락을 상쇄할 만한 노동생산성의 증가)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 기간 동안 피고용자 비율의 증가가 둔화되었고, 특히 실질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등 자본-노동간 세력관

계가 변화한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추측됨(이상 <표 1> 참조).

<표 1> 1982년 이후 기간별 노동소득분배율 및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년도		비용자비율(%) ¹⁾	노동집약도(%) ²⁾	자본-노동간 세력관계 척도 ³⁾	노동소득 분배율(%) ⁴⁾
연평균	1982	47.6	122.7	6.7	51.5
	1987	56.2	79.8	2.7	52.7
	1992	62.7	46.2	5.9	58.7
	1997	63.2	27.3	-0.1	62.3
	1998	61.7	25.4	-11.1	61.9
	1999	62.4	23.9	5.1	59.7
	2000	63.1	23.1	2.4	58.8
	2001	63.3	22.0	0.1	59.4
	2002	64.0	20.7	5.0	58.2
	2003	65.1	19.9	2.7	59.7
	2004	66.0	19.1	0.9	58.8
기간평균 증감률 ⁵⁾	I기(1982~1987)	18.1	-35.0	2.8	2.3
	II기(1988~1997)	10.9	-61.1	4.1	15.2
	III기(1998~2004)	7.0	-24.7	0.7(2.7)	-5.0
	1982~2004	38.7	-84.4	2.7(3.3)	14.2

주 : 1) 비용자 비율=임금근로자/취업자.

2) 노동집약도=임금근로자/국내총생산(십억원당).

3) 해당시기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노동생산성증가율간의 격차를 의미하며, 실질노동생산성(지수)은 2000년을 기준(100.0)으로 하여 실질부가가치산출량을 노동투입량(人)으로 나눈 개념임.

4) 노동소득분배율=(비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100(전산업).

5) 해당기간의 증감률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1998년의 사례를 제외한 값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각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 『KLI노동통계』,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최소 10%포인트 이상 낮는데 이러한 노동소득불평등 정도를 완화하기위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부표> 참조).

-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공급을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해소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은 조합원(조직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비조합원(미조직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연대임금정책의 의제 상정, 노동조합

신규조직화, 산별교섭 촉진, 단체협약 포괄범위 확장 등).

〈부표〉 1970년 이후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추이

(단위 : %)

	호주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A	B	C
1970	-	-	-	-	-	40.0	33.7	-
1971	70.2	70.9	57.6	74.0	72.3	40.2	33.6	-
1972	-	-	-	-	-	39.4	33.1	-
1973	-	-	-	-	-	40.1	33.4	-
1974	-	-	-	-	-	38.3	31.6	-
1975	75.0	75.2	66.4	81.1	72.2	39.5	31.9	-
1976	-	-	-	-	-	40.9	32.8	-
1977	-	-	-	-	-	43.1	34.4	-
1978	-	-	-	-	-	45.2	36.4	-
1979	-	-	-	-	-	47.7	37.9	-
1980	70.4	77.3	65.9	81.4	73.5	50.3	39.0	-
1981	72.0	78.2	67.0	81.1	72.5	50.1	38.3	-
1982	74.0	78.2	67.6	79.4	73.0	51.5	38.9	-
1983	70.0	75.9	68.5	76.3	71.9	53.2	40.1	-
1984	70.5	74.8	68.2	75.6	70.2	53.1	40.1	-
1985	70.8	74.3	66.9	75.2	70.6	52.9	40.0	-
1986	70.8	73.6	67.0	75.4	71.3	52.3	39.8	-
1987	68.8	74.6	66.8	74.4	71.3	52.7	40.5	-
1988	68.1	73.5	66.0	73.9	70.6	54.1	41.9	-
1989	69.6	72.5	66.3	74.9	70.6	56.4	44.2	-
1990	70.8	72.0	66.7	76.7	71.2	57.8	44.9	52.4
1991	69.5	72.9	67.3	78.2	71.8	58.7	46.1	54.3
1992	68.1	74.3	68.7	76.9	71.9	58.7	46.1	54.1
1993	68.2	75.1	70.0	74.6	71.7	59.0	46.2	52.6
1994	69.7	74.4	71.2	71.7	71.3	59.2	46.2	51.2
1995	69.7	74.0	72.1	71.6	70.8	61.3	46.9	47.7
1996	70.0	73.3	71.3	70.3	69.8	63.4	47.8	53.0
1997	68.5	72.4	71.5	70.0	69.5	62.3	46.1	52.1
1998	69.5	71.9	72.7	70.1	70.3	61.9	44.8	45.7
1999	69.2	72.4	72.6	72.6	70.5	59.7	43.0	41.7
2000	69.3	73.2	73.1	73.5	71.2	58.8	42.9	47.7
2001	68.4	73.2	74.1	73.5	71.6	59.4	43.5	51.5
2002	69.5	72.9	72.7	72.4	71.4	58.2	43.0	46.3
2003	-	72.2	-	71.5	70.5	59.7	44.1	48.1
2004	-	-	-	-	-	58.8	44.0	-

주 : 1) A=(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100(전산업).

2) B=(피용자보수/국내총생산)×100(전산업).

3) C=(인건비/부가가치)×100(제조업).

4) 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A 방식으로 계산된 값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OECD 국가의 국민계정 주요지표』, 2005.